



## 특별기고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

날씨가 이상해졌다. 5월부터 낮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훌쩍 뛰어넘어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그로인한 폭염과 오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지 의아하다.

특히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늦은 장마와 강수량도 평년에 비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다. 그런데다 장마 이후의 기습폭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서지 않을 수 없다.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UN 제27차 총회에서 환경을 위한 세계의 관심과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하고, 각국 정부에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우리나라 는 1988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 개최 및 각종 환경보전 행사를 실시해왔으며,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20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생물자원보호,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입니다'로 정해졌다.

생물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성인 남성의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맹꽁이를 살리기 위해 행정기관을 비롯한 자연보호단체 등이 뜨거운 여름에 도로 위로 올라오는 맹꽁이를 다시 습지로 돌려보내기 위해 땀을 흘리는 활동을 두고, 혹자는 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이 맹꽁이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얹히고 설득력이 사슬을 연상해보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물자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대행스럽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울진 왕퍼천과 청도 운문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힘써

미래에 희망을 물려줘야 한다

”

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된 독도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여우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주에서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영양에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첫 삽을 뜨고 2017년 2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그뿐 아니다. 가시박이나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사업을 위해 환경청과 지자체, 기업, 민간단체 등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협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가 차츰 빨라지고 있고,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뜨거워진 지구는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 농작물과 해양생물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작황 지도가 바뀌고, 아열대성 병해충이 번식하는 등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해결방법은 지구의 온도를 내리는 것, 기후변화에 적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이던 국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운동이 온실가스 다량배출국인 중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전력낭비를 줄이기 위한 컴퓨터 절전형 소프트웨어 '그린터치', 전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면 할인혜택과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린카드',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단소포인트'가 그것이다.

정부의 시책과 국민들의 참여가 이뤄낸 성공사례를 다른 나라에도 확산하게 된 것은 좋은 일이다. 앞으로도 개인과 단체, 학교, 기업 등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 분위기를 널리 확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물자원보호를 통해 미래세대에 건전한 희망을 물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바란다.